



이제는 보여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말하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청년을 보셨습니다. 청년은 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다가가서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침으로 진흙을 조금 이겨서 청년의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 짚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25)

중심생각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청년이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보인다, 보여!” 눈에서 진흙을 씻자마자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웃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이 맞나요?”, “아니야,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이겠지.”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어요. 바로 오늘까지도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사람들이 그를 유대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저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나요?




참고서적
요한복음 9:1-38,
시대의 소망 470-475


기억절 외우기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하기

눈을 가리고 교과책을 읽어보세요. 옷을 입어보세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말해보세요.




말하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준 방법을 말해보세요.




생각해내기

눈을 뜬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맨 처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